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기독교인,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걸어다니는 성경 되겠다” 고백



예멘에서 기독교 박해가 다시 심화되고 있다. 최근 후티 반군이 장악한 지역에서 여러 기독교인이 체포되거나 실종됐다는 보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현지 기독교인 ‘마제드’(Majed·가명)의 사연을 전하며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예멘 지하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겪는 공동체다. 수십 년간 이어진 내전과 극단주의 세력의 지배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돼 있다.

마제드는 “주변의 동료들이 극단주의자들에게 잇따라 납치됐고, 나도 곧 그렇게 될 것 같다”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긴장하고, 한순간 한순간이 형벌 같은 시간”이라고 했다. 이어 “진실은 꾸준하고 신중하게 다가온다. 잡힐 것을 아는 순간, 생각들이 마구 쏟아지고 모든 말과 선택들이 떠오른다. 결국 다가올 고난을 기다리는 건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마제드는 두려움이 아닌 신앙적 사명을 붙든다. 그는 체포가 임박했다는 사실 앞에서 가장 먼저 성경구절 암기에 힘쓰고 있으며, “저는 어디로 끌려가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고 싶다”고 고백했다.

안전한 지역으로 도피할 수 있음에도 마제드는 여전히 자신의 지역을 떠나지 않고 있다. 그는 “도망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모두가 떠난다면 누가 남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 곁에 남아 위로와 평화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예멘 후티 반군이 통제하는 지역에서는 체포된 이들이 몇 주에서 몇 달, 혹은 그 이상 아무 소식 없이 실종되는 일이 흔하다. 고문과 심문이 반복되는 가운데 생사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마제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사역하던 형제들이 심문을 받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마제드는 체포의 공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한다. 그는 “예수님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고, 승리를 약속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주는 전 세계 성도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예멘에는 빛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들을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제드를 감옥 안팎에서 사용하시도록 △수감자들과 그 가족들이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예멘 교회에 더 이상 해가 가지 않도록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두려움 때문에 제자들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역을 멈추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사도행전 20:32)

하나님, 다가올 고난을 예비하며 어디서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성경을 외우며 기도로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마제드와 같은 예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을 입은 이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그 마음에 주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시고 믿음을 든든히 세우사 박해 속에서도 이기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소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평안이 예멘 곳곳에 임하여 내전으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진리 안에 거하는 참 자유가 있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한국, 시민단체들 “제주평화인권헌장 폐기하라” 강력 반발

시민단체들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0일 ‘세계 인권의 날’에 선포할 예정인 제주평화인권헌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동반연, 진평연, 거룩한방파제 등은 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선포를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우선 헌장 제정 과정에서 ‘인권 편향적 성향의 특정 인사들로 구성’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며, 헌장의 문구 변경에도 성직지향은 유지돼 “동성혼 및 젠더이데올로기 정책의 확산에 악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 관련 조항에서도 “체류자격 등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출입국관리법과 고용허가제(E-9)를 부정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불법체류를 사실상 양성하고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1년 넘게 이어진 1인 시위와 수많은 반대 의견에도 제주도는 헌장을 강행하고 있다”며 “민주적 법치국가의 절차를 무시하고 오영훈 지사가 오는 10일 선포식을 강행하려는 태도는 행정의 독주이며 도민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이사야 59:8,20)

하나님, 출입국관리법을 부정하며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을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에 대해 단체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선포를 강행하려는 제주도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속히 헌장이 폐지되게 하시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스스로 굽은 길을 만들어 정의 없이 행하는 위정자들을 꾸짖어 주옵소서. 그들의 어그러진 마음을 고치사 모든 죄과를 떠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이때 더욱 한국교회를 깨우사 살아있는 영성과 포기하지 않는 간구로 주께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구속자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평화로 임하여 모든 이가 주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 태국·캄보디아 국경서 또 교전…태국군 1명 사망·4명 부상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지역에서 또다시 충돌했다고 연합뉴스가 로이터통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태국군은 8일 새벽 북동부 우본랏차타니주에서 국경을 맞댄 캄보디아와 교전을 벌였다. 태국군은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군이 태국군을 향해 (먼저) 발포했다”며 태국 군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어 “태국 군이 현재 전투기를 동원해 (캄보디아) 여러 지역에 있는 군사 목표물을 타격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현지 매체는 태국 당국이 캄보디아와의 국경이 가까운 4개 주에 대피 명령을 내렸으며 F-16 전투기도 출격시켰다고 보도했다. 양국은 전날에도 국경 지역에서 교전을 벌였고, 태국 군인 2명이 총상을 입었다. 이후 양국은 서로 상대국이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태국과 캄보디아는 지난 5월 무력 충돌로 양측에서 48명이 숨지고 30만 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다. 이후 두 나라는 지난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휴전 협정을 체결했지만, 양국은 계속 충돌해왔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야고보서 3:16,18)

하나님,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대에서 또다시 무력 충돌이 일어나 혼란과 위태한 상황에 놓인 두 나라를 주께 의탁 드립니다. 수많은 피란민을 발생시키며 주변 지역 주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이 분쟁을 속히 멈춰 주시고 다툼과 모든 악한 일을 일으키는 어두운 심령을 꾸짖어 주십시오. 진리의 책망을 받는 모든 자마다 화평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두 나라를 십자가 복음으로 구속하여 주사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더 이상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며 의의 열매를 심고 거두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백성에게 내리소서”
무슬림 출신 선교사 하룬 이브라힘, 10만 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해



아랍계 무슬림 출신의 하룬 이브라힘(Harun Ibrahim)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미디어와 위성방송을 활용해 무슬림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헌신한 뒤, 수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고 CBN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이브라힘은 이스라엘에서 아랍계 무슬림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 유대인 학교에서 공부했고, 독실한 기독교 여성과 결혼했다. 여러 해 동안 종교들을 탐구한 끝에 그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러던 중 길에서 만난 한 남성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성경 말씀을 전하며 직접 성경을 읽어 볼 것을 권했고, 이브라힘은 요한복음을 일곱 번 연속으로 읽은 끝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회심 후 그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불타올랐고, 수년 동안 여러 아랍 국가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복음 전도에 전념했다. 2003년에는 알하야트(Al Hayat) 선교회를 설립해 위성방송과 인터넷을 통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선교회는 무슬림 배경 신자들에게 대위임령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와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지금까지 10만 명 이상이 이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고 밝혔다.

이브라힘은 최근 ‘키핑 잇 리얼 이스라엘(Keeping It Real Israel)’ 팟캐스트에 출연해 짧은 시간 안에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에만 1억 900만 개의 시청자 반응이나 응답을 받았고, 수천 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며 “이는 무슬림 세계에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슬림의 문화와 언어로 직접 소통하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고 밝혔다. 또한 미디어·TV·인터넷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고, 한때 고립되고 닫혀 있던 무슬림 세계가 위성 채널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복음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많은 무슬림들이 회심할 경우 가족에게서 버림받거나 직업과 생계를 잃고, 일부 국가에서는 목숨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슬람에서 개종은 허용되지 않으며, 돌아올 기회를 주는 국가도 있지만 이를 거부하면 박해가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기도할 것을 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셀라) (시편 3:7-8)

하나님, 한사람 중인의 순종을 통해 열방의 많은 무슬림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과 주의 구원을 나타내시니 감사드립니다. 혹독한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로써 믿음을 지키는 무슬림 배경의 신자들을 보호하시며, 원수의 간계를 꺾으사 주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옵소서. 미디어와 여러 통로를 통해 닫혀 있는 이슬람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십자가의 사랑과 승리를 찬송하게 하소서. 또한 한 몸 된 교회가 이 일을 위해 연합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의 구원을 얻는 주의 복을 열방이 받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중국 대학들, 기독교 포함 종교 활동 전면 조사

중국 동부 산둥성의 여러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의 종교 활동을 겨냥한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되고 있다고 차이나에이드가 최근 전했다. 여러 대학에서는 2025년 초, 종교 신앙 여부를 묻는 조사가 실시됐으며, 종교적 신앙 보유 여부, 모임 장소, 현금(봉헌) 참여 여부 등 민감한 질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당시 조사가 사실상 “종교 활동을 포기하라”는 메시지로 느껴질 만큼 위협적인 분위기였다고 증언했다. 학생들과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앙을 갖고 있다’고 답한 학생들은 이후 성(省)·시(市)·현(縣)·구(區) 각 행정단계 공안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에 불려 갔다. 이러한 조사는 현재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기관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여러 인사들에 따르면, 감독 부처 내부에서는 “1년 안에 지역 내 가정교회를 정리하라”는 목표가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목표는 지역사회에서 가정교회 모임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고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기독교 교회들조차 수면 아래에서 더 까다로운 점검과 축소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요한계시록 3:8)

하나님, 가정교회 모임을 말살하기 위한 악의적 목표를 가지고 이제는 대학생들에게까지 종교 조사라는 명목으로 신앙을 포기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중국 공산당을 꾸짖어 주십시오. 기독교인을 향한 괴롭힘이 더해가는 이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증인 된 백성들을 축복하옵소서. 나를 살리신 생명의 복음을 이들이 끝까지 붙들며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놀라운 구원을 중국에 이루어 주소서.

▲ 가자지구, 휴전 후에도 아동·임산부 영양실조 급증…인도적 위기 계속

가자지구 휴전 이후에도 아동과 임산부의 중증 영양실조가 급증하며 인도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가디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유엔아동기금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9,300명 이상의 아동이 중증 급성 영양실조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는 올해 8월보다 감소했지만, 직전 휴전 기간인 2-3월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임산부와 모유 수유 중인 여성 8,300명도 심각한 영양실조로 입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엔은 가자지구 주민 220만 명 대부분이 노숙·대피소 생활을 하며 식량·생필품을 구매할 여력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유엔과 국제이주기구가 가자에 들여보낸 구호 트럭은 하루 평균 140대로, 휴전 협정 당시 목표치인 600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편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운동가 알카티브는 하마스가 보건부 창고로 추정되는 곳에 분유와 영양보충제를 대량으로 숨긴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심각한 기아 시기에 식량을 은닉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하마스가 기아를 ‘전략적 도구’로 사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암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신명기 28:2-3)

하나님, 가자지구에 휴전이 발효되었지만, 전쟁과 기근의 후유증으로 인해 인도적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을 돌보사 이들의 필요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대부분의 주민들이 노숙과 대피소 생활을 할 만큼 황폐한 성읍이 되어버린 이 땅의 영혼들이 그 마음에까지 낙심이 찾아오지 않도록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옵소서. 가자지구에 심어두신 소수의 증인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는 주의 백성되게 하소서.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마사이 구호 선교회, 여성할례와 싸워…매년 300명 구조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3천만 명의 여성이 여성할례(FGM)를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마사이 구호 선교회(Maasai Rescue Ministries)가 탄자니아에서 매년 약 300명의 소녀를 구조하고 있다고 에반젤리컬포커스가 보도했다. 아프리카(1억 4,400만 명)와 아시아(8,000만 명), 중동(600만 명) 지역에서 여성할례 위험은 여전히 높으며, 유니세프는 매년 약 450만 명의 소녀가 위험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탄자니아에서는 1998년부터 여성할례가 범죄로 규정됐지만, 여전히 문화적 전통으로 용인되고 있다. 특히 전체 절제 사례의 35%가 만 1세가 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민족 공동체에서 여성할례 비율은 40-60%인 반면, 마사이 공동체는 60%를 훨씬 넘는다. 이 문화에서는 여성할례를 거쳐야만 결혼이 가능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마크 무렌자 목사는 15년 전 ‘소녀의 권리’라는 사역을 시작했으며 현재 매년 약 300명의 소녀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구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역은 마사이 구호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미국 선교사 브렌다 앤더슨이 대표로 국제적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스페인 복음주의 연맹(AEE)도 프로젝트를 공식 후원하고 있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단순한 구조를 넘어선다. 앤더슨은 “복음, 사랑, 교육을 통해 남성, 어머니, 할머니, 공동체 지도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활동은 매우 위험한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마사이 공동체에서는 “여성은 절제를 하지 않으면 임신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절제에 반대하는 이들은 부족 지도자들로부터 적대감을 받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받는다. 실제 공격을 받은 사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이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교회가 성장하고 있으며, 현재 다섯 개의 교회가 운영되고 각 교회에는 약 150명의 신자가 소속돼 있다.

앤더슨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사역 팀과 소녀들·여성들, 그리고 부족 지도자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특히 공동체의 최고 권위를 가진 부족 지도자 10명이 여성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아래 세대에 가르칠 때 비로소 공동체 전체가 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에스겔 20:30,44)

하나님, 여성 할례의 위험성을 알고 법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악습에 묶여 여전히 가증스런 풍속을 따르고 있는 탄자니아의 영혼들을 궁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들을 섬기는 선교회를 축복하시고 더욱 몸 된 교회와의 연합을 이루사 주의 복음이 더욱 전파되게 하옵소서. 위험에 처한 여성들뿐 아니라 그가 속한 부족 지도자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가장 안전한 길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어리석은 전통을 따르던 자들이 악한 생각과 더러운 행위에서 돌이켜 말씀하신바 진리를 따라 행하는 생명 공동체로 빚어지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프랑스 국민연합, 80년 만에 공창제 부활 추진…‘성매매 여성 보호’ 주장 논란

프랑스 국민연합(RN)이 1940년대 폐지된 공창제 부활 법안을 추진하면서 ‘성매매 여성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했다. 국민연합 소속 장 필리프 탕기 의원은 일간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관련 법안 초안이 완성됐으며 수정 작업을 거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린 르펜 의원 역시 이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며, 업소를 성매매 여성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직접 운영하도록 하고 기존 ‘매춘업소’라는 명칭도 변경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탕기 의원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성매매 구조를 합법화해 종사 여성의 안전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 폭력 국가 관측소는 프랑스에서 약 3만 5,000-4만 명이 성매매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톨릭계 보수 의원들은 공창제 부활이 시대착오적이라며 반대했다. 또한 성매매 여성 지원 단체는 “남성의 욕구를 위해 여성의 공간을 만들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위기 18:30)

하나님, 성매매 여성의 명분을 내세워 아주 오래전에 폐지된 공창제 부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프랑스 의회의 소식에 탄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여성의 성적 쾌락의 도구로 착취하는 가증한 일을 옳다 지지하는 악의적인 법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이 일을 주관하는 자들의 계략을 꾸짖으시고 발의 자체를 무산시켜 주소서. 이때 프랑스 교회가 더욱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는 주의 거룩한 통로로 서게 하소서.

▲ 日 ‘후발지진 주의보’ 속 또 규모 6.9 지진…높이 20cm 쓰나미

지난 8일 밤 규모 7.5 강진이 발생한 일본 혼슈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12일 오전 11시 44분께 규모 6.9로 추정되는 지진이 다시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다. 기상청은 애초 규모 6.5로 발표했다가 6.7, 다시 6.9로 상향 조정했으며 진원 깊이도 20km에서 17km로 변경했다. NHK는 초기엔 쓰나미 우려가 없다고 전했으나, 기상청이 뒤늦게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다. 아오모리 하치노헤항과 훗카이도 에리모초에서는 높이 20cm의 쓰나미가 관측됐고 주의보는 오후 2시 5분 모두 해제됐다. 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아키타·홋카이도 일부 지역에서는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됐으며 원전과 사용후 핵연료 시설에서는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치노헤시의 기존 손상 철탑도 추가 위험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칸센 운행이 잠시 중단됐으나 특별한 인명·물적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8일 강진을 계기로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첫 발령한 상태로, 이번 주의보는 16일 0시까지 유지된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8일 강진의 활동 영역에서 발생했다며 계속한 주의를 당부했으나 규모가 7.0에 미치지 않아 주의보 연장은 하지 않았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시편 90:1-2,12)

하나님,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지진이 발생해 쓰나미에 대한 주의와 경보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일본을 돌아보옵소서.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신 주께 구하오니 언제 몰려올지 모르는 거대한 자연재해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일본에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주께 전부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